



數의 漢字表記

한국원자력연구소
원자로관리실장 徐 斗 煥

수의 표기로서는 보통 10진법으로 나타내고, 이공계에서는 주로 구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(천)자리씩의 단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. 즉, E(exa : 10^{18}), P(peta : 10^{15}), T(tera : 10^{12}), G(giga : 10^9), M(mega : 10^6), k(kilo : 10^3), h(hecto : 10^2), da(deca : 10), d(dec : 10^{-1}), c(centi : 10^{-2}), m(mili : 10^{-3}), μ (micro : 10^{-6}), n(nano : 10^{-9}), p(pico : 10^{-12}), f(femto : 10^{-15}), a(atto : 10^{-18}) 등이다.

그러면 이것들을 한자로 나타내면 어떠한지 중국의 「算術統宗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. 큰쪽은 네(만)자리씩의 단위인데 一(일 : 10^0), 萬(만 : 10^4), 億(억 : 10^8), 兆(조 : 10^{12}), 京(경 : 10^{16}), 垓(해 : 10^{20}), 秭(자 : 10^{24}), 穰(양 : 10^{28}), 溝(구 : 10^{32}), 澗(간 : 10^{36}), 正(정 : 10^{40}), 載(재 : 10^{44}), 極(극 : 10^{48}), 恆河沙(항하사 : 10^{52}), 阿僧祇(아승지 : 10^{56}), 那由他(나유타 : 10^{60}), 不可思議(불가사의 : 10^{64}), 無量大數(무량대수 : 10^{68}) 등이다.

작은 쪽은 分(분 : 10^{-1}), 厘(리 : 10^{-2}), 毛(모 : 10^{-3}), 絲(사 : 10^{-4}), 忽(홀 : 10^{-5}), 微(미 : 10^{-6}), 纖(섬 : 10^{-7}), 沙(사 : 10^{-8}), 塵(진 : 10^{-9}), 埃(애 : 10^{-10}), 渺(묘 : 10^{-11}), 漠

(막 : 10^{-12}), 模糊(모호 : 10^{-13}), 逡巡(준순 : 10^{-14}), 須臾(수유 : 10^{-15}), 瞬息(순식 : 10^{-16}), 彈指(탄지 : 10^{-17}), 剎那(찰나 : 10^{-18}), 六德(육덕 : 10^{-19}), 虛(허 : 10^{-20}), 空(공 : 10^{-21}), 淸(청 : 10^{-22}), 淨(정 : 10^{-23}) 등으로 10분의 1 단위로 나타내고 있다.

이들 한자표기에서 아주 큰 수나 작은 수는 불전에서 많이 유래하였다고 한다. 예를 들면 那由他, 阿僧祇는 無限을 뜻하고, 恆河沙는 인도에 있는 Ganges강의 모래알처럼 셀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며, 微塵은 작은 티끌(particle), 剎那是 손가락을 한번 튀기는 순간, 곧 썩 짧은 동안을 뜻한다. 須臾는 잠시라는 뜻이다. 이들 한자의 사용 예로 큰 것으로는 千載一遇의 機會, 感慨無量, 萬里長天, 萬古不滅 등 수 없이 많으며, 작은 것으로는 纖細한 神經, 曖味模糊, 瞬息間, 虛空, 淸淨無垢라는 말이 있다.